

표준 물류기기 보급 통해 물류경쟁력 확보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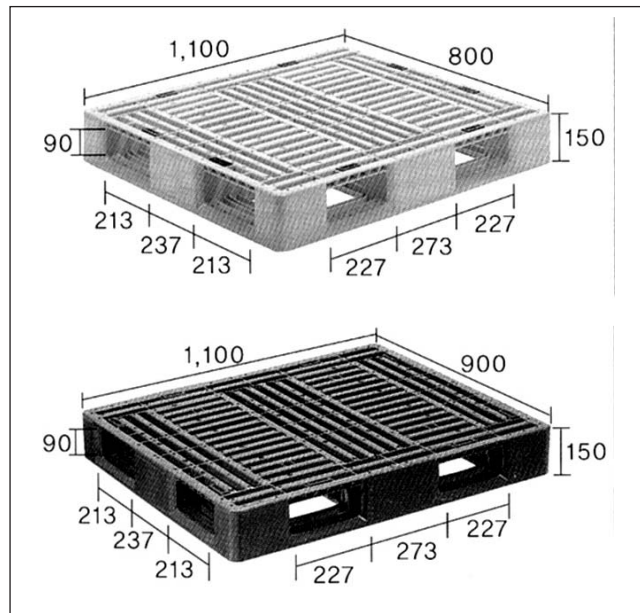
국내 최초 일체형 파렛트 개발 등 기술 혁신 이뤄



김진국
(주)파렛텍 대표이사

(주)파렛텍(대표이사 김진국)(구 (주)세화파렛텍)은 플라스틱 파렛트, 컨테이너 물류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2년 (주)세화물류시스템으로 출발하여 지난 해 5월 물류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(주)폴드라인이 회사를 인수, 파렛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.

14여년동안 플라스틱 파렛트 업계를 선도해 온 파렛텍은 표준 파렛트와 표준 컨테이너 생산 및 기술개발,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KS, ISO 품질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



▲ (주)파렛텍이 국내 최초 개발한 일체형 파렛트



▲ 충남 당진군에 위치한 (주)파렛텍 공장 전경

(주)파렛텍은 국내 최초로 일체형 파렛트를 개발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표준화 및 컨테이너의 생산, 확대, 보급에 노력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.

특히 파렛텍의 일체형 파렛트는 기존의 용착형 파렛트에서 새로운 신공법을 국내에 첫 소개하면서 물류기기 기술력 제고는 물론 표준 물류기기 보급을 통한 기업들의 물류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고 있다. 일체형 파렛트는 일체형 성형으로 경량화는 물론 접합 부위의 파손 염

려가 없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실현하여 목재에서 플라스틱 파렛트로 바뀌어도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.

물류부분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하고자 설립 당시부터 일본 DIC 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일체형 파렛트를 개발한 파렛텍은 3~4여년만에 일체형 공법의 활성화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한다.

플라스틱 파렛트산업에서 현재 일체형 파렛트가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때 (주)파렛텍이 물류기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음

은 틀림이 없다. 이뿐만 아니라 목재파렛트 방역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일회용 파렛트를 2001년 개발,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. 파렛텍의 일회용 파렛트는 HDPE 및 PPC 재질로 수출시 검역 문제를 해결, 재활용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채택하였다.

또한 표준화(T-11형) 규격으로 컨테이너 수송에 적합하고 일체형 성형으로 초경량화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등 파렛텍의 모든 신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PALLETECH

이처럼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파렛텍의 플라스틱 파렛트는 일반적으로 정교한 디자인에 의한 초경량화 및 일체형의 파렛트 생산을 실현했고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발포 또는 무발포로 성형하여 목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설비와 유능한 엔지니어를 기초로 생산된 규격품으로 치수, 중량, 강도가 균일하여 작업 표준화가 용이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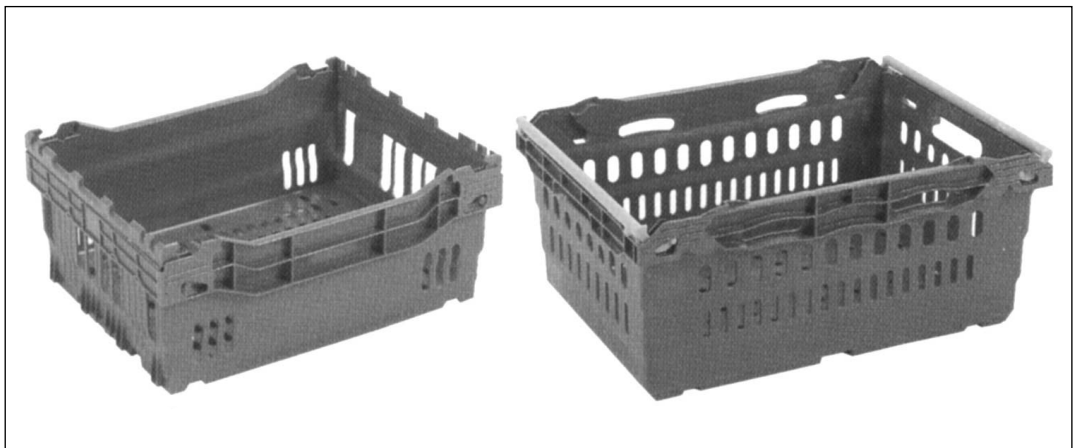
뿐만 아니라 공간활용이 극대화 되어 어떤 방향이라도 리프트가 가능하고 양질의 미끄럼 방지 고무패킹을 부착해 작업 시제품 및 지게차의 미끄럼 방지도 극대화했다. 비흡수성으로써 목재파렛트처럼 썩거나 곰팡이, 잡균이 번식할 우려가 없고 물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이다.

또한 파렛트 연결부위에 못 등 금속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적재 제품의 손상 및 작업자의 부상 위험도 크게 줄이는

걸 실현했으며 가볍고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취급이 용이하고 작업성이 뛰어나다.

뛰어난 내수성, 내후성 및 내구성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내한, 내열성이 우수해 변형이 없고 약품에도 부식되지 않는다.

이밖에 (주)파렛텍은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, 한국기업의 물류기기 제품, 품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, 국제적인 물류 표준화 제품의 생산, 판매에 매



▲ (주)파렛텍이 생산하는 식품, 농수산물 상자



▲ (주)파렛텍의 생산설비

진하고 있으며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해 왔다. 각 모델별 표준작업서를 작성하는 한편 불량 부적합 제품 처리 현황 보고 및 개선 활동, 불량률 0% 도전을 위한 개선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.

파렛텍은 동일한 기계적 품질 특성의 제품을 더 가볍고,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술력이 발휘되면서 타 경쟁사와의 경쟁에서도 비교 우위를 지키고 있다.

본격적으로 새로운 상호로 올해 활발한 사업을 펼칠 파렛텍은 지난 해 11월 새로운 CEO를 맞이하게 됐다. 김진국 대표이사는 세화물류시스템시절부터 각종 해외 프로젝트

트를 전담, 일체형 파렛트 도입 시기부터 파렛텍을 지켜오면서 뛰어난 실력을 검증받아 왔다.

김 사장은 “회사 설립 이래 물류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파렛텍이 앞으로 더욱 건실한 업체가 되도록 매진 할 것”이라며 “회사 발전과 더불어 열심히 뛰어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42여명의 파렛텍 직원들은 지난 해 200억원 매출에 이어 올해 장기적으로 3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올해를 새로운 원년의 기회로 잡은 파렛텍은 현재 초경량 접이식 상자를 개발, 골판

지 상자를 대체 할 수 있는 리터너블 타입의 새로운 포장개념의 신기술 제품을 출시, 예정 중에 있다.

김 사장은 “이 제품은 유통마트 식음료 부분에 있어서 포장재 규격 통일화가 이뤄져 포장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며 “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으로 식음료 유통 포장에 있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앞으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컨테이너 표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는 (주)파렛텍. 물류혁신다운 기업답게 파렛텍의 기술력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. ☐

이한얼 기자